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내 방위산업

Analyst 최정환 CFA | 방위산업
jeonghwan.choi@daishin.com

※ 본 자료는 대신증권이 발간한 조사분석 자료이며, 대신증권 홈페이지 (www.daishin.com)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본 자료를 여하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26. Daishin Securities.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Part 1. 구조적 성장기에 돌입한 전세계 방위산업	03
(1)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2) 방위산업의 구조적 성장	
Part 2. 심화되고 있는 경쟁 속 현지화 전략	08
(1) 지역별 현황	
(2) 국내 방위산업체 현지화 전략	
Part 3. 신규 무기체계 시장	14

Part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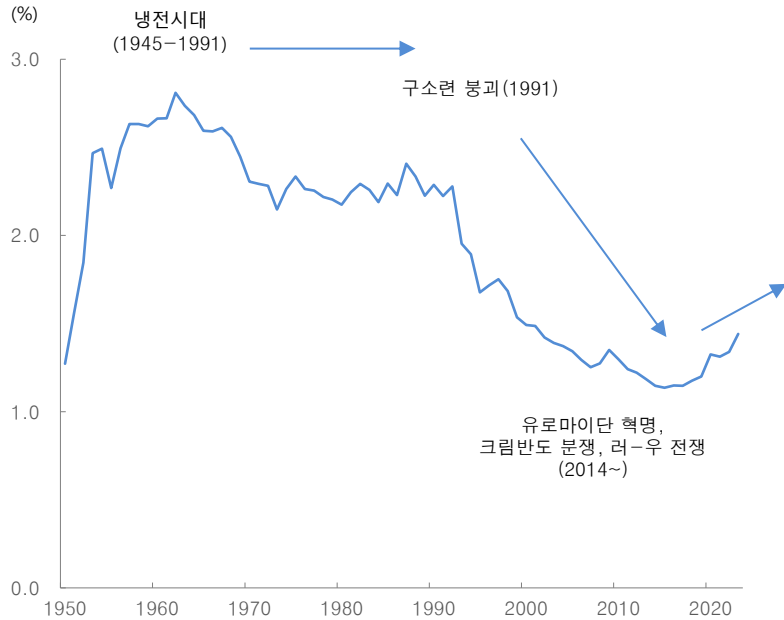
구조적 성장기에 돌입한 전세계 방위산업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가격, 납기, 성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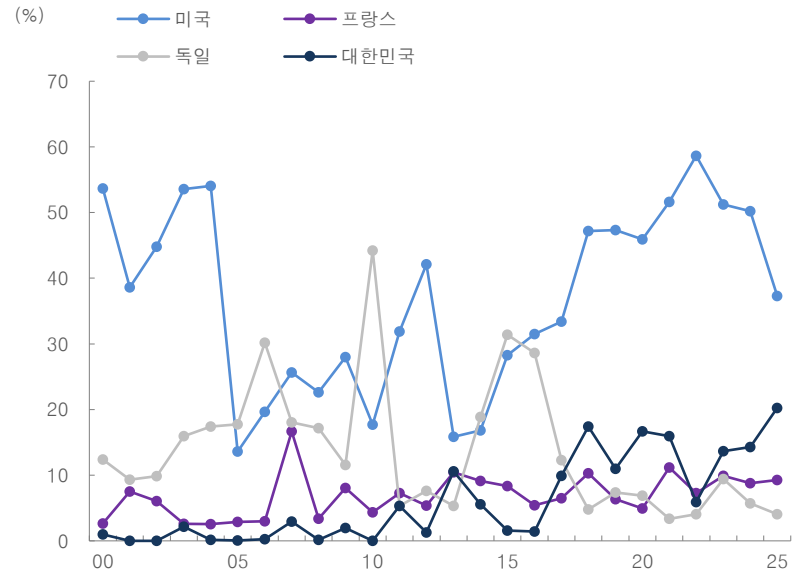
- 방위산업은 B2G사업으로 정부 수요 없이는 산업 유지 불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국내 방위산업 공급망을 반드시 유지해야 했으며 철강, 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성장한 국가
- 냉전 이후 유럽 방위산업 공급망 붕괴, 이에 따른 무기체계 단가 상승 견인. 이는 1) 정부 방위비 감소 기조에 따른 신규 수주의 부재 2) 제조업 역량 약화로부터 기인

전세계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중 추이



자료: SIPR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방위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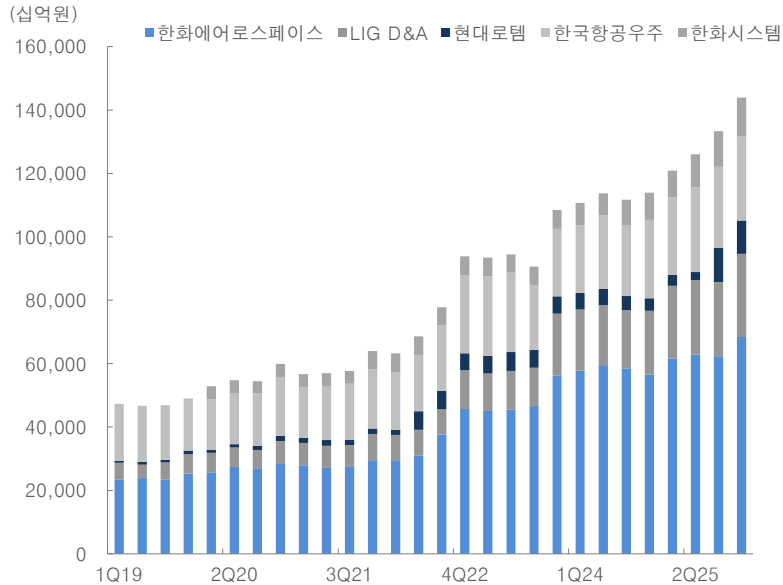
자료: SIPR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 방위산업의 구조적 성장 Phase 1

대한민국-폴란드 간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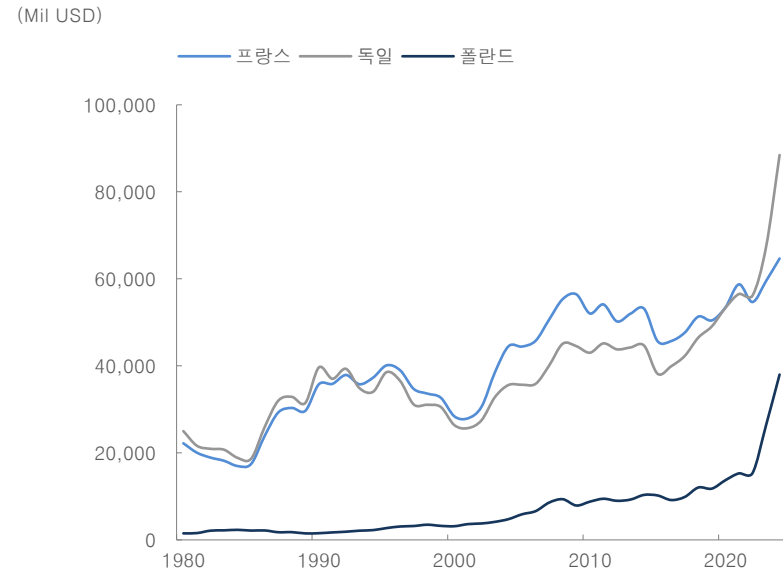
- 22년 7월 폴란드와 K9사주포 672문, K2전차 1,000대, 천무 288문, FA-50 48대 기본계약 체결. 1차 실행계약의 경우 Gap Filler 위주 직수출, 2차 실행계약의 경우 폴란드 맞춤형 개발 및 현지화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 상태
- 방위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 및 군수지원이 무기체계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폴란드군의 대규모 방산물자 도입은 유럽 시장 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 현재 튀르키예 T-155 프르트나 및 알타이 전차 250대를 합치면 유럽 내 국내 무기체계 점유율은 사주포 35%, 전차 15%, 다연장로켓 30% 수준으로 추정

국내 방위산업체 5사 수주잔고 합산 추이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프랑스, 독일, 폴란드 방위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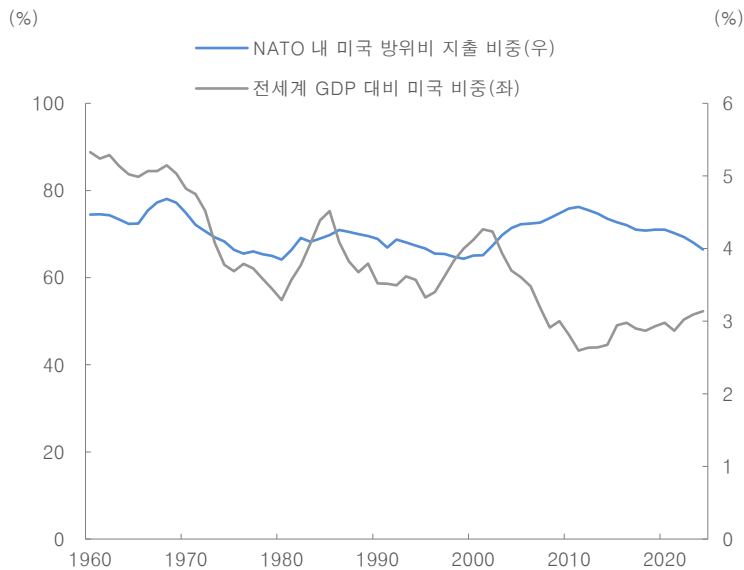
자료: SIPR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방위산업의 구조적 성장 Phase 2

미국의 안보 부담 기조 속 방위산업 자립화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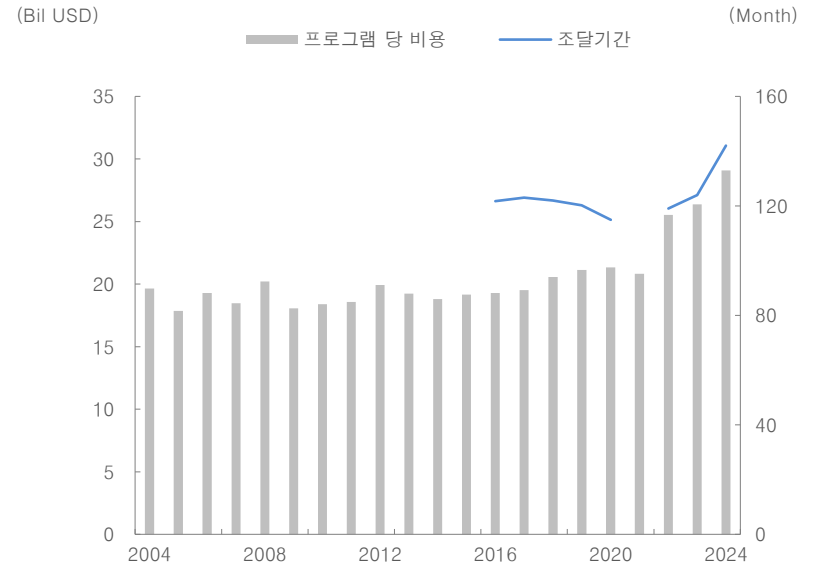
-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 따라 유럽, 중동 지역에 더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통제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매년 지불해야 하는 국채 이자 비용이 연간 국방예산을 추월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미국은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요구해옴. 14년 NATO 웨일즈 정상회의에서는 24년까지 NATO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지출을 결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와서는 25년 국가방위전략(NDS) 및 26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미국이 전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음을 선언

NATO 방위비 지출 및 미국 GDP 비중 추이



자료: SIPR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방 조달 프로그램 비용 및 조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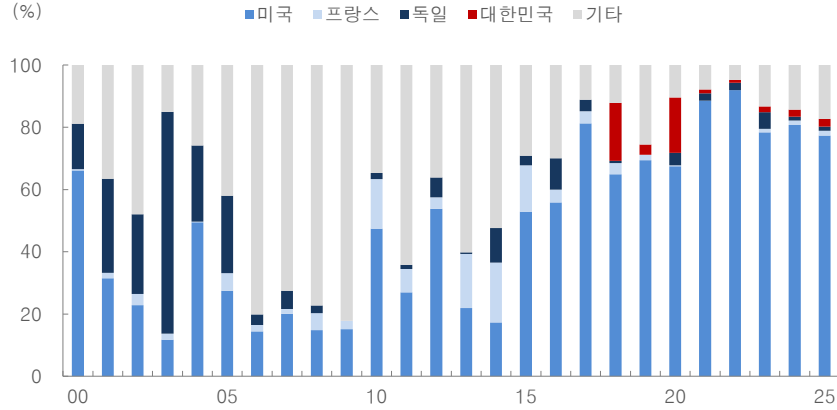


자료: 미국 국방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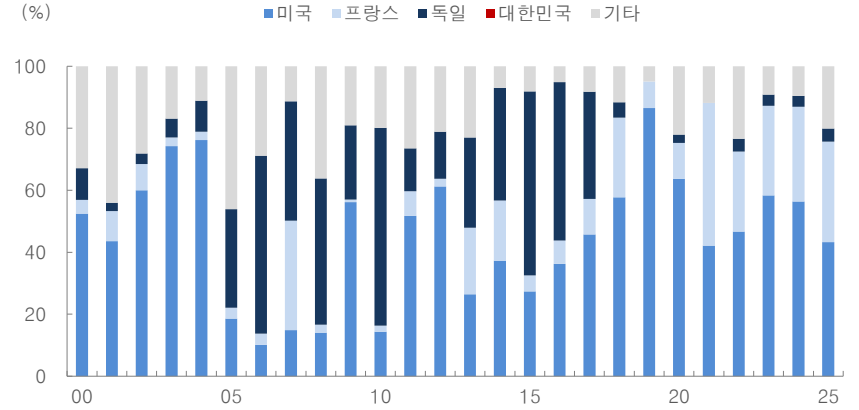
(5)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지역별 수출국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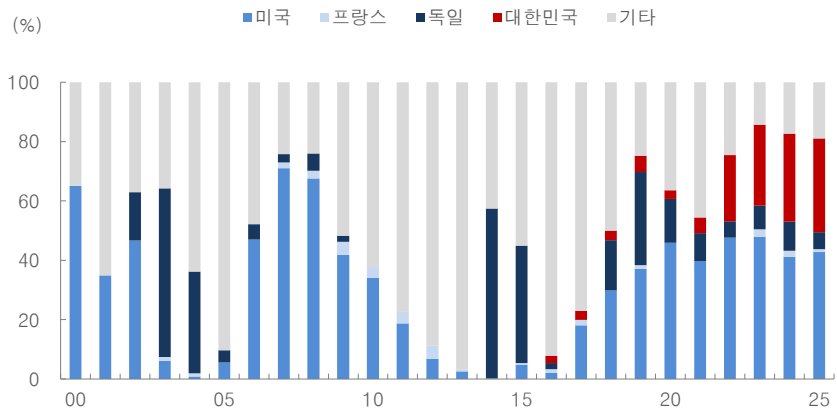
북유럽 주요 국가 대상 방산물자 수출국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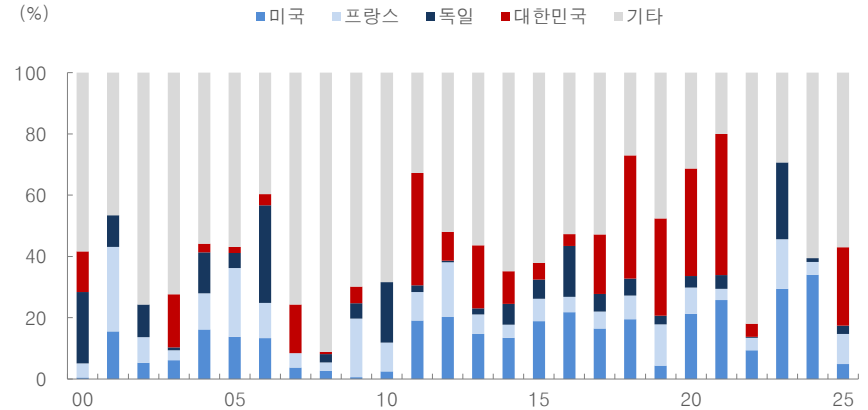
남유럽 주요 국가 대상 방산물자 수출국 비중 추이



동유럽 주요 국가 대상 방산물자 수출국 비중 추이



남중국해 주요 국가 대상 방산물자 수출국 비중 추이



자료: SIPR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SIPR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art II.

심화되고 있는 경쟁 속 현지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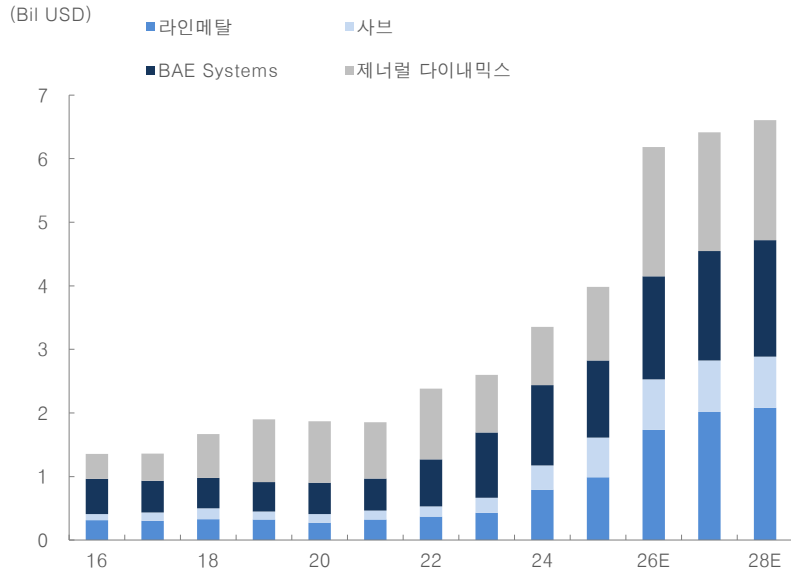
(1) 성장하는 방위산업, 심화되는 경쟁

- 미국 안보 분담 기조에 따라 중장기적 방위산업 상승 사이클 돌입,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의 설비 투자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유럽 재무장계획에 따른 유럽 방위산업의 부활

1) 재정지출 예외조항: 방위비 지출 시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 국가부채 GDP 대비 60% 이내' 조항에 예외조항 발동 추진. 이를 통해 GDP 대비 1.5%를 국방비에 추가 지출 시 4년간 총 6,500억 유로(약 990조) 규모 재원 확보 가능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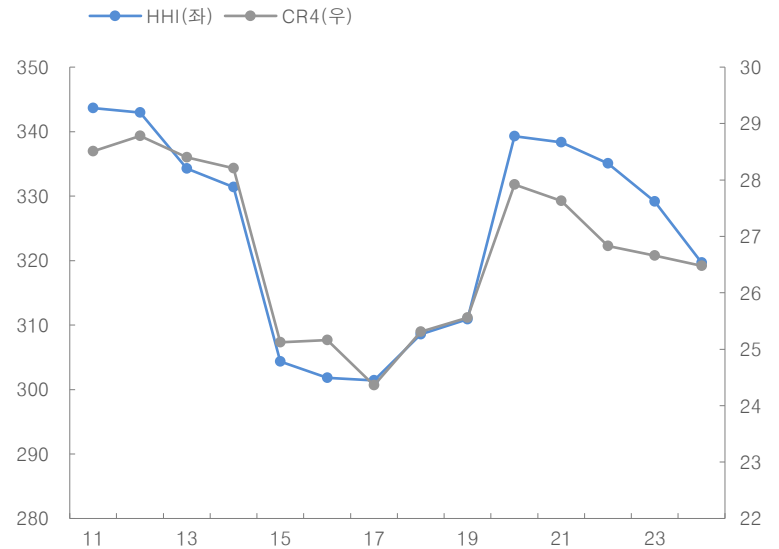
2) 유럽 공동조달 및 블록화 심화: 2035년까지 60% 공동조달 목표, SAFE 기금은 65% 역내 조달을 강조

글로벌 방위산업체 CAPEX 투자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방위산업 내 경쟁 강도 지표 추이



자료: SIPR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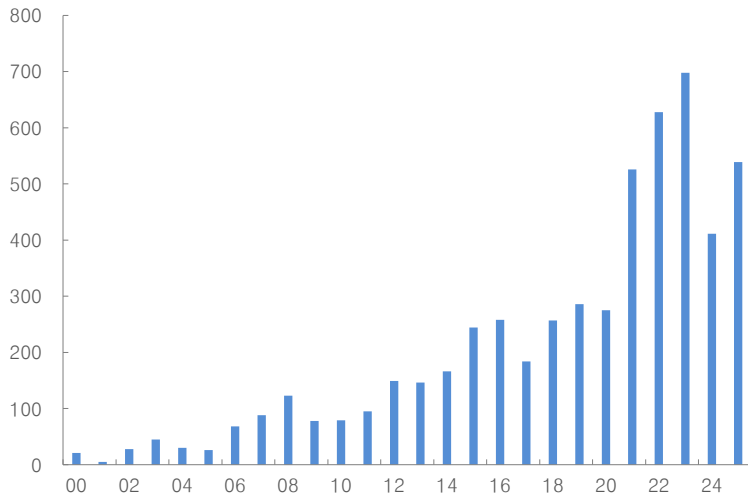
(2) 성장하는 방위산업, 심화되는 경쟁

튀르키예, 일본의 약진

- 튀르키예: 2020년 후반까지 핵심 부품을 포함한 100% 독립적인 방위산업 육성 정책 구축 목표. 무인기, 미사일 분야 강국으로 현재 TF-X를 통해 KAAN 전투기 개발 중. 다만 항전장비, 유도무기 통합, 엔진 인도 지연에 따라 개발 난항을 겪는 중
- 일본: 14년 동맹국·국제협력 차원 제한적 수출 → 23년 라이선스 제품 완제품 수출 → 24년 국제 공동 개발 무기 제 3국 수출 허용 → 26년 '5유형 규제' 폐지 통해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무기 체계 독자적 수출 허용. 기존 일본 무기체계의 소량생산 한계에서 벗어나 국방예산 증가에 따른 대량생산 그리고 해외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동개발 통해 수출 경쟁력 회복 중. 향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향후 미국 방위산업과 파트너십 증대 전망

튀르키예 방산물자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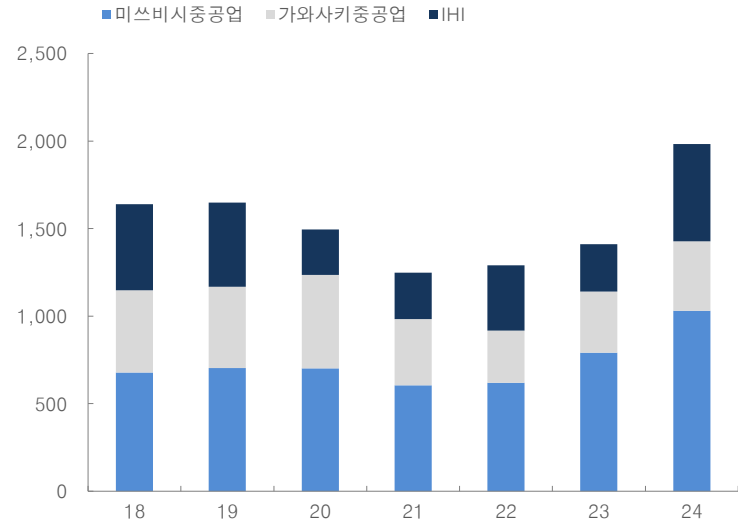
(TIV)



자료: SIPR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방위산업체 방산 부문 매출액 추이

(Bil Y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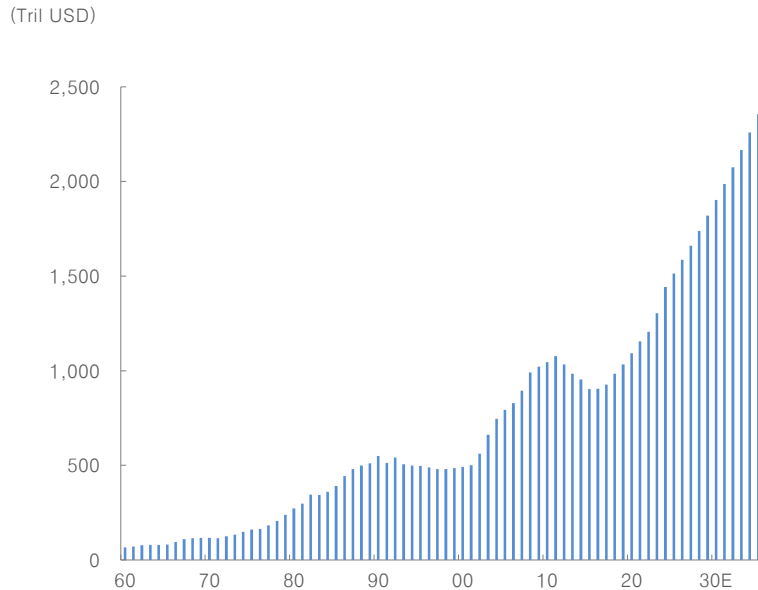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 성장하는 방위산업, 심화되는 경쟁

방위산업 현지화 전략: 유럽,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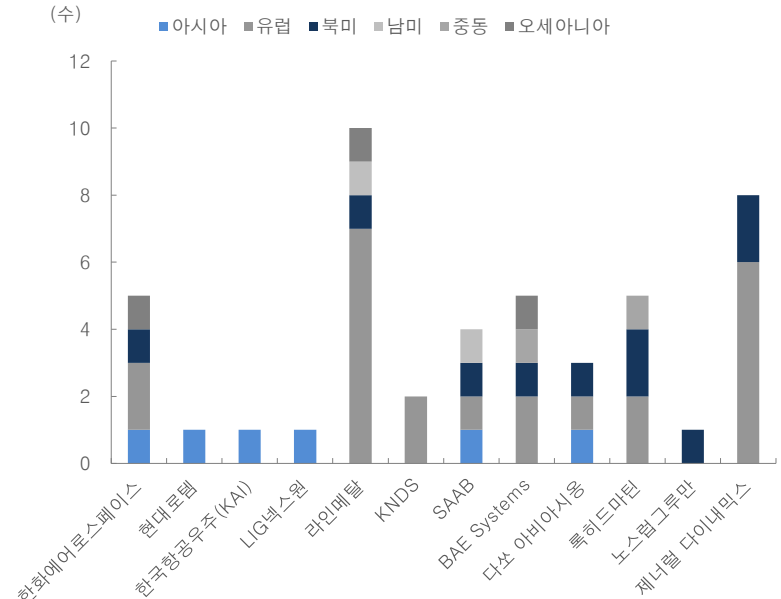
- **서유럽:** 국내 방위산업체는 폴란드 기반 현지 거점 그리고 서유럽 방위산업체와 파트너십 및 JV 설립을 통해 서유럽 시장 도전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Thales 천무 로켓 및 유도탄 X-Fire 플랫폼 통합, LIG D&A · Rheinmetall 간 JV 설립 통해 서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
- **미국:** Buy America에 의해 미국산 부품 비중 75% 이상 역내 조달 요구.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 위해서는 현지 투자 필수적. 미국 현지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미국 장약 공장 투자, 자회사 통해 필리조선소 인수 및 오스탈조선소 지분 투자 진행. LIG D&A 또한 미국 법인 설립해 사업 진출 준비 중

NATO 주요 회원국 방위비 지출 추이 및 전망



자료: SIPRI, World Ban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피어 및 국내 방위산업체 현지 생산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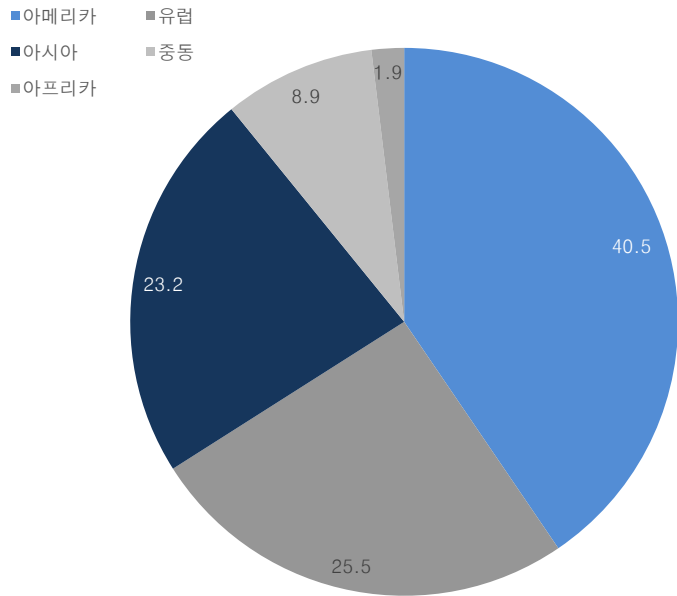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성장하는 방위산업, 심화되는 경쟁

방위산업 현지화 전략: 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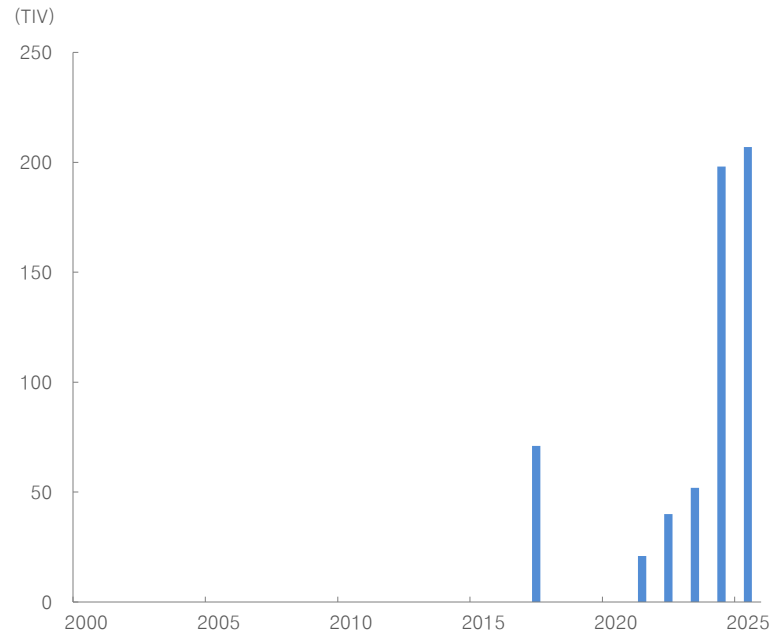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 600억원이 넘어가는 국방 조달 계약에 대해서는 전체 계약의 60% 이상을 사우디 산업 기여 요구. 여기에는 국방물자 조달을 위한 현지 투자, 공동 연구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음. 60%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간 초과 크레딧을 인정, 향후 차기 사업에서 60% 의무량 중 25% 까지를 초과 크레딧을 통해 채울 수 있음
- **UAE:** 독자적인 안보 태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내 방산 제조 허브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

24년 지역별 방위비 지출 비중 현황



자료: SIPR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대한민국 중동향 방산물자 수출 추이



자료: SIPR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 성장하는 방위산업, 심화되는 경쟁

방위산업 현지화 전략

기업명	국가	세부 내용	진행 상황	파트너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폴란드	K9 자주포 체계 종합 천무 유도탄 생산	26~ 30E~	PGZ WB (51:49 JV설립)
	루마니아	K9 자주포 체계 종합	27E~	직접 투자
	스페인	K9 자주포 체계 종합	MOU 체결	Indra
	프랑스	X-FIRE 및 천무 유도탄 통합	MOU 체결	Thales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인도	다수 무기체계 포함 K9 자주포 체계 종합 K9 자주포 체계 종합 K9 자주포 체계 종합	사업자 선정 중 MOU 체결 26~ 25~	직접 투자 - Factory 200 L&T
미국	미국	아칸소주 장약공장	30E~	직접 투자
		K9 차륜형 체계 종합 항공용 부품(EDAC) 생산	26년 7월 사업자 선정 19년 인수	- 직접 투자
		중소형 선박(필리조선소) 건조 중소형 군함(오스탈조선소) 건조	25~ 25~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호주	K9 자주포, 레드백(H-ACE) 체계 종합	24~	직접 투자	
LIG D&A	독일	방공체계 현지화 협력	JV 설립 합의	Rheinmetall
현대로템	폴란드	K2 전차 체계 종합	27E~	PGZ
	루마니아	K2 전차	-	현지 투자 및 파트너 미정
	페루	K2 전차, K808 장갑차 체계 종합	기본계약 체결	FAME
한국항공우주	인도네시아	KF-21 공동 개발	개발 완료	PTDI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art III.

신규 무기체계 시장

(1) 신규 무기체계 시장

단거리 방공체계(SHORAD)

- CIWS- II : AESA레이더·EOTS 탑재 및 30×173 mm 탄 활용. 중남급 호위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소양급 군수지원함에 탑재 될 예정이며 향후 함정용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방호 용도인 고정식 포탑 C-RAM(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 차륜형까지 확장이 가능하기에 수출이 기대되는 체계
- H-SHORAD: 현재 증가하고 있는 중동 내 무인기 위협에 따라 자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AESA레이더 탑재 및 30x173mm 탄 활용 추정

LIG D&A CIWS- II



자료: 현대위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SHORAD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 신규 무기체계 시장

단거리 방공체계(SHORAD)

- **천광**: 19년 방위사업청 주관 레이저대공무기 Block1 개발 사업 공식화, 23년 실사격 시험 성공하며 체계개발 완료
- **천광 개량사업**: 장갑차 및 차량 탑재형 Block2 개발이 진행 중이며 Block3에서는 드론 뿐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직접 요격할 수 있도록 100kW 이상으로 출력 강화가 이뤄질 예정. 단기에는 기술적 한계로 차륜형 대공포가 주로 활용되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방공 체계

한화시스템 Block별 개량형 모습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화시스템 천광 레이저 발사장치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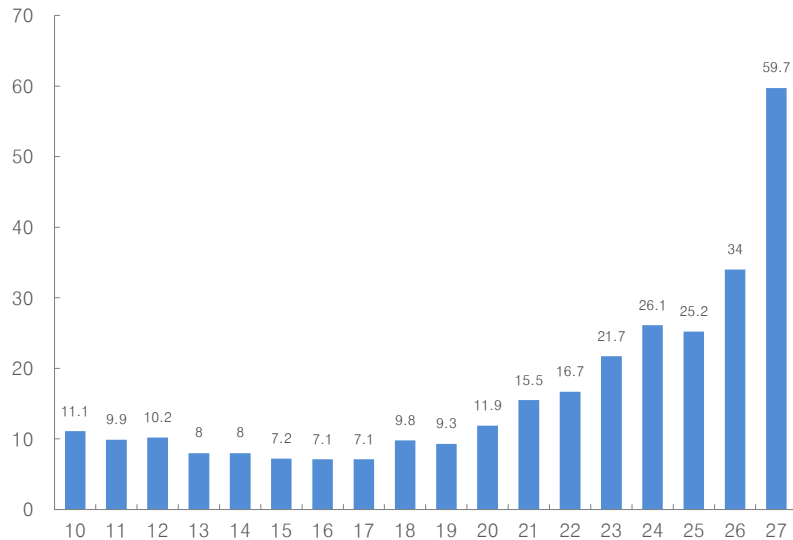
(2) 신규 무기체계 시장

저궤도 위성체계

- **지상 기반 감시 체계 보완:** 경제적 논리와 무관하게 안보를 위한 위성 수요 증가를 전망. 위성 탑재체로는 상호 보완이 가능한 EO·IR 및 SAR가 함께 활용될 것이며 관측위성 뿐 아니라 유무인복합체계 및 백본망 역할을 하는 저궤도 통신 위성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할 것임
- **국내외 현황:** 미국의 경우 방공체계의 일부로 저궤도 위성을 편입해 PWSA, 골든돔과 같은 사업을 진행 중. 27년 국방 예산 내 우주분야에 597억달러(+75% YoY)가 배정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2H26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자 선정 예정임. 저궤도 위성 특성 상 수명이 2-3년으로 짧아 위성 대량 양산 체계 필요. 한화시스템의 경우 제주한화우주센터 설립해 국내외 위성 수요에 대응할 계획

미국 국방부 우주 관련 예산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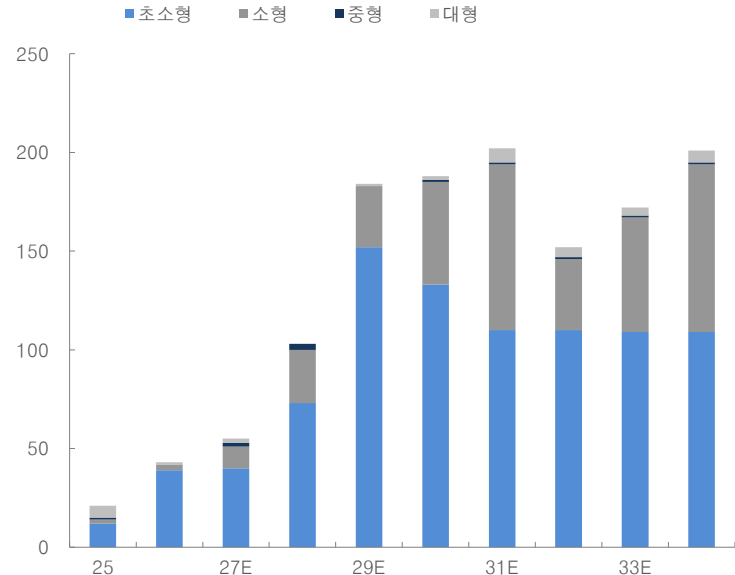
(Bil USD)



자료: 미국 국방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내 25-34 위성 개발 및 발사 수요 전망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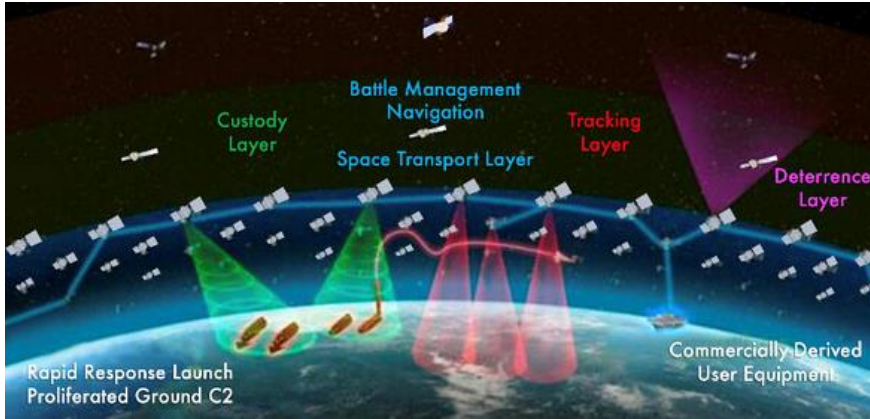


자료: 우주항공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 신규 무기체계 시장

저궤도 위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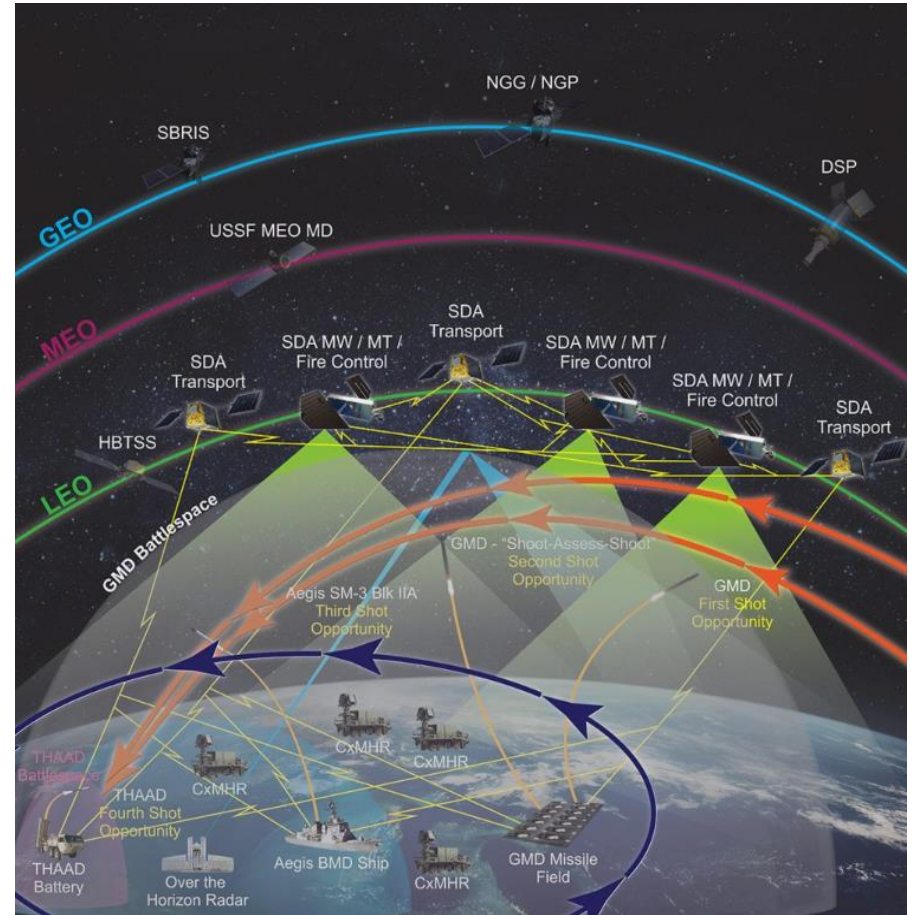
미국 PWSA 구조



국내 초소형위성체계사업

<p><초소형위성체계 형성 및 운용도></p>	<p><이동식 미사일 등 탐지 및 운용 개념도></p>

미국 Golden Dome 구조



자료 SDA, 방위사업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 신규 무기체계 시장

저궤도 위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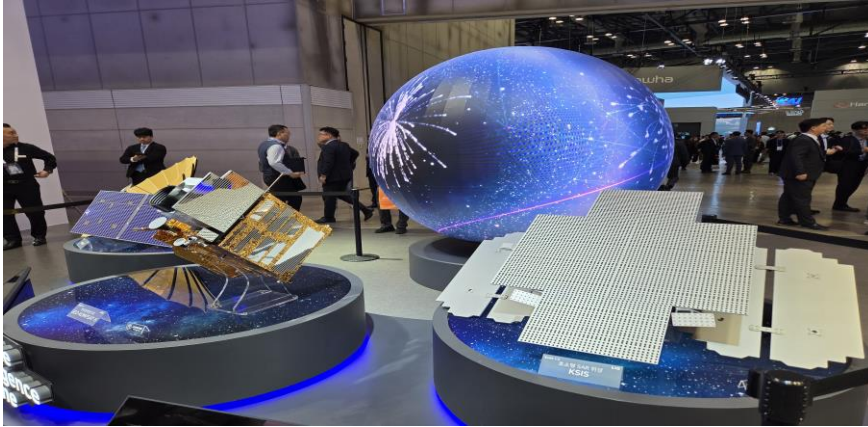
구분	기업명(체계명)	규모	세부 내용
전투체계	Palantir (TITAN)	1.7억달러	다영역 데이터 통합
	Northrop Grumman (IBCS)	-	미국 본토 내 통합 방공 운영체계
	Lockheed Martin (C2BMC)	-	전 지구적 방어자산의 통합
지상기반 탐지 및 요격 체계 (지상 기반 방공망)	Lockheed Martin (PAC-3)	-	하층(0-30km) 방어
	RTX (SM-6)	-	중하층 방어
	Lockheed Martin (THAAD)	-	상층(40-150km) 방어
	RTX, Mitsubishi (SM-3)	-	중상층(70-500km) 외기권 방어
	Boeing (GMD)	-	중상층(70-500km) 외기권 방어
PWSA Tranche 1 (우주기반감시체계)	Lockheed Martin	7억달러	Transport Layer 42기
	Northrop Grumman	6.9억달러	Tracking Layer 14기
	L3Harris	1.9억달러	Transport Layer 42기
	York Space	3.8억달러	Transport Layer 42기
PWSA Tranche 2 (우주기반감시체계)	Lockheed Martin	8.1억달러	Transport Layer 36기
	Northrop Grumman	7.3억달러	Transport Layer 36기
	L3Harris	9.1억달러	Tracking Layer 18기
	York Space	6.1억달러	Transport Layer 62기
	Rocket Lab	5.1억달러	Transport Layer 18기
PWSA Tranche 3 (우주기반감시체계)	Lockheed Martin	11억달러	Tracking Layer 18기
	Northrop Grumman	7.6억달러	Tracking Layer 18기
	L3Harris	8.4억달러	Tracking Layer 18기
SBI(우주기반요격체계)	Andruil, Northrop Grumman, Raytheon, General Dynamics, Lockheed Martin 등	32억달러	-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 신규 무기체계 시장

저궤도 위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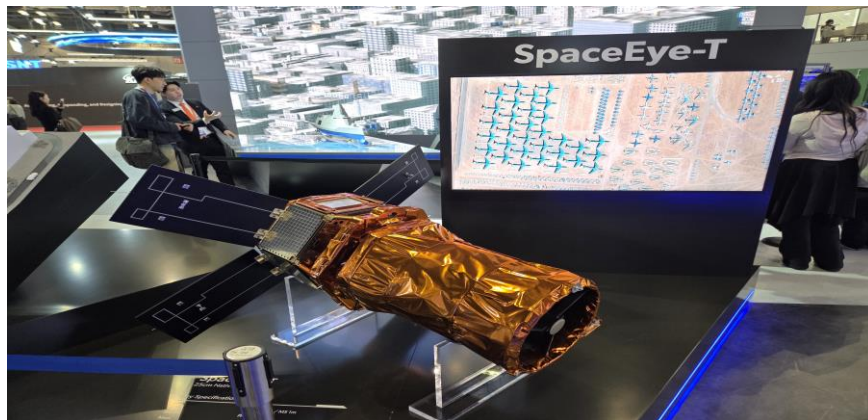
LIG D&A 저궤도 SAR 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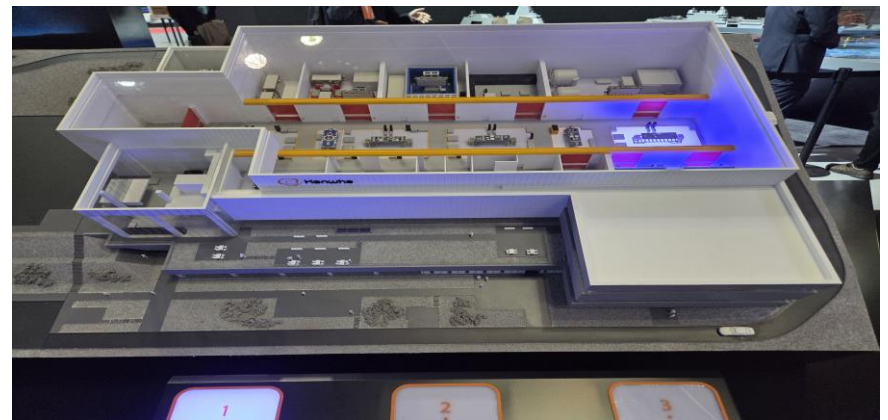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초저궤도(VLEO) SAR 위성



메트릭아이 Space Eye-T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내부 조감도



(Appendix) 국내 방위산업 ETF 현황

ETF명	구성종목 비중(26.06.26 기준)
TIGER K방산&우주(463250)	현대로템 23.3%, LIG D&A 20.7%, 한국항공우주 19.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3%, 한화시스템 11.4%, 풍산 2.2%
SOL K방산(49048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2%, LIG D&A 17.5%, HD현대중공업 17.4%, 한화오션 13.5%, 한국항공우주 13.0%, 현대로템 6.8%
KODEX 방산 Top10(0080G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5%, 한국항공우주 20.4%, 현대로템 19.7%, LIG D&A 19.4%, 한화시스템 12.5%, 풍산 4.0% 등
PLUS K방산(449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1%, 한화오션 20.2%, 현대로템 18.7%, LIG D&A 14.7%, 한국항공우주 14.1%, 한화시스템 8.0%
ACE 유럽방산 TOP10(0102X0)	Rolls-Royce Holdings 21.6%, Kongsberg Gruppen 20.7%, Rheinmetall 16.3%, BAE Systems 11.2%, Thales 6.4%
iShares U.S. Aerospace& Defense(ITA)	GE Aerospace 22.8%, RTX 15.0%, BOEING 9.1%, TRANSDIGM 4.7%, Howmet Aerospace 4.6%, General Dynamics 4.3%
Invesco Aerospace & Defense ETF(PPA)	General Electric 9.8%, BOEING 8.4%, RTX 7.4%, Lockheed Martin 6.1%, Honeywell International 4.6%
Global X Defense Tech ETF(SHLD)	RTX 9.5%, General Dynamics 9.0%, Lockheed Martin 8.5%, Northrop Grumman 8.0%, Palantir 7.4%, L3HARRIS 4.7%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 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작성자: 최정환)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활용 제3자 제공 온라인 게시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